

박태원 교수의 ⑲

불교로 보는 인생

진주에 훌륭한 한의사 한 분이 계신다. 한 스님의 소개로 알게 되어, 벌써 10년 가까이 선우 인연을 가꾸어 가고 있다. 처음 인사하던 날, 그 분의 자기 소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의업을 선택하게 된 사연과 공부 과정을 소상히 드러내 주셨는데, '보기 드문 선근(善根) 공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내용이었다. 가식이나 과장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분의 공부 과정은 알짜 교훈으로 가득하였다.

젊은 시절 어느 날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의사를 찾아가니, 잘 해야 몇 달 더 살 수 있는 상태라나. 그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어 얼마 안 걸리는 그 길을 몇 걸음 걷다 앉고 또 주저앉으며 천근 만근 마음으로 무겁게 걸었단다. 너무도 급하게 들려온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가 그 확실하던 삶의 모든 것을 일시에 허망하게 증발시키려 덤비니, 걸음 걸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오더란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한동안 넋을 놓다가 정신 차려 자신을 돌아보니, 을 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날 때는 누구나 새삼 진지하고 숙연해진다. 어줍은 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드려대는 나는 어떻게 걸었고 또 걸을 것인가? 일년을, 그리고 평생을 비추어 볼 구체적 거울 하나를 생각해 본다. 부처님이 권하시는 생명 성숙의 길, 그 존재 해방의 길 위에서, 나도 내 숙업(宿業)의 습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향상의 기준 하나를 서원 삼아 확인해 두고 싶다.

직업 환경 상 나는 지성(知性)의 타자 부정적 성향에 함몰되기 쉽다. 학문의 길이란 비판 기능의 연마를 내포하는 것. 인간과 세상에 관한 경험과 관점과 이론들을 근저에서부터 세밀히 음미하는 지성의 능력을 함양하다 보니, 각종의 장, 단점, 그 일리(一理)와 무리(無理)와 한계들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비판 능력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새 타자 부정의 차갑고 예리한 성향에 쉽게 물들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이 성향을 그대로 방치하면 삶을 망가뜨리는 세

신사년 서원 하나

성냄의 교묘한 함정 빠지지 않도록 노력

가지 잠재 습벽(三毒心)의 하나인 진심(嗔心: 성냄, 증오, 공격, 질투, 잔인함 등으로 표현되는 타자 부정의 성향을 키우게 된다. 예리하지만 차갑고 메마른 지성은 '타자 부정'의 유효한 도구로 전락하기 쉬운 법. 진리 탐구의 이름으로 비판 이성을 갈고 닦는 세상의 모든 학인들은 이 함정을 십분 경계해야 한다. 밝고 깊은 통찰과 따뜻한 자비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부처님 법은 그래서 수승하고 위대하다.

방심(放心: 경험하는 '것'들을 향해 마음이 치달려 나감)하기만 하면 곧 습벽에 밀려 차갑게 식곤 하였던 나를 되돌아보며, 새해 경건하게 원(願) 하나를 새긴다.

'21세기 그 중반을 못 넘기는 어느 시점에 마감할 '박 아무개'란 생명이, 진심(嗔心)의 그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정신 차리리라. 밝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안으려 노력하리라.'

■울산대 철학과 교수

간 별 생각 없이 흘려 오던 허물들이 눈에 선명해지고, 그래서 절절히 참회하며 다짐하길, "혹 건강이 회복되어 더 살게 된다면 다시는 화내지 않으리!" 하셨단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아마도 화급한 성격으로 가까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 꽤나 입혔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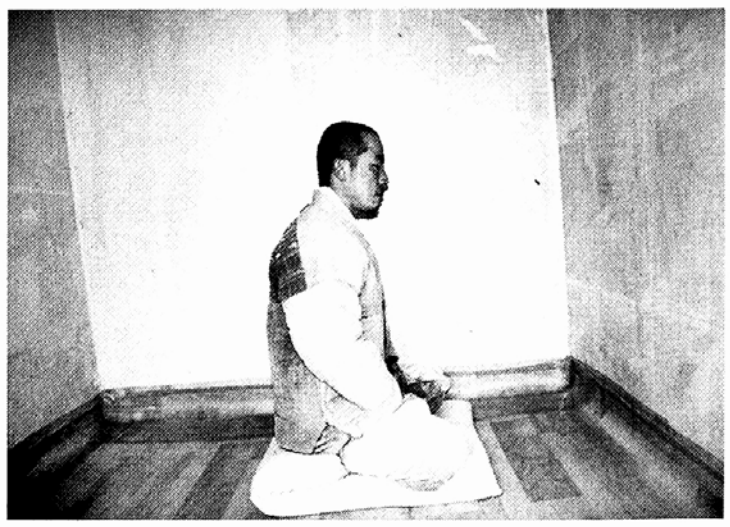
그 후 우여곡절 끝에 한의학 처방으로 기사회생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한의학의 길에 접어 든 그 분은, 죽음의 심연 앞에서 일으켰던 다짐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나한테 한 약속대로 그 후로는 별로 화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나 힘 실려 있는 그 분의 말을 들으며 나는 서원의 영험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입문한 의업의 길에서 60 넘으신 지금도 밤늦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분에게서는, 의술의 경지 만큼이나 수행의 자세와 성취 또한 선명히 돋보인다. 참선으로 밝아진 도안(道眼)과 마음 씀씀이는 주위를 언제나 법향(法香)으로 채운다.

또 한 해를 열고 있다. 기원(紀元) 설정에 개입한 인위적 편애가 무엇이건 간에, 걸은 길을 되살피고 갈 길

한평 남짓 흙집 솔바람 소리만…

참물자의 길 토굴수행 왜 하나



◇토굴은 세속의 잡사에서 벗어나 일체의 방해를 받지않고 용맹정진 할 수 있는 수행처다. 사진은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는 청견스님.

'이 뭐꼬', '무(無)'….

지금, 제방 선원에서는 수좌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제각기 화두를 붙잡고 용맹정진 중이다. 이런 선 수행의 중심은 백양사 운문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 선원이다. 반면 무문관(無門關)과 토굴(土窟) 등에서 홀로 가행 정진하는 선객들 또한 상당수다. 이러한 수행처는 전국의 유명산 곳곳에 여러 형태로 있다. 다만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토굴은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어온 산실이라 할 정도로 많은 고승들이 거쳐간 수행처다. 진표 율사는 변산 의상봉 동쪽 불사의방장에서, 원효 스님(617~686은 전북 개암사 뒤 암봉 울금바위굴에서, 근세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경봉 스님(1892~1982)은 고성 문수암 인근 천연동굴에서 뼈를 깎는 정진을 통해 깨침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굴 수행은 불교사의 맥을 같이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독살이(?)' 수행을 하는 것일까.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등 여러 산 속 토굴에서 15년 간 수행을 해온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을 통해 토굴수행 이야기를 들어본다.

스님은 처음부터 토굴수행을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선방엔 한번쯤 방부를 들이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구참 수행자다. 그런 스님이 왜, 대중 생활을 뒤로하고 굳이 산 속으로 들어가 험난한 토굴수행을 자처했을까.

구랍 23일 기자가 찾아간 양평 봉미산 자락 토굴에서 스님은 면벽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 토굴에는 간혹 새와 솔바람 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것이 정적에 싸여 있다. 스님이 직접 만든 이 토굴은 한 평 남짓한 흙집.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 농가의 작은 창고처럼 보인다. 하얀 색의 한지로 도배한 내부에는 좌복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을 뿐이다. 창문도 없다.

스님이 대중선방 생활에서 벗어나 토굴수행을 하게 된 것은 번거로운 세속의 잡사에서 벗어나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진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토굴수행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스님은 한때 수년간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생식을 하며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정진에 몰두한 적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씻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얼마간은 온몸이 간지러워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선불교 맥 이어온 산실
의식주 집착 않는 정진
'쉼터' 변질 안타깝다

이 단계를 잘 견디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특히 토굴 수행자에겐 씻는 일 등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수행의 시간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님은 또 토굴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먹는 일에도 집착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깊은 산 속의 토굴생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먹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먹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먹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행의 순조로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러 곡물을 갈아 만든 미싯가루를 수행식으로 한다.

세상의 괴로움이 자신을 옥죄어 올 때 불보살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힘들고 어지러운 시절이어선지 최근 단기출가, 주말선수련회 등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어떤 불자들은 어디에서 수행해야 잘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은 초심자에게는 장소보다 투철한 신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투철한 신심이 확립되었을 때,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가르친 수행의 방법을 직접 몸으로 수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출발점은 철저한 신심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스님들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토굴수행은 보통 한 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묵언과 부동의 고행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촌철살인의 원력과 풍부한 수행경험, 그리고 선지식의 지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무위도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살이를 하는 만큼 자칫하면 부처님이나 조사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신비적인 직관으로 인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스님은 "자신의 근기는 생각하지 않고 '토굴수행'이란 꿈 하나만으로 수행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이다"고 귀띔한다. 즉 자신의 근기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의 기초가 이뤄지지 않고 섣부르게 하다보면 오히려 헛된 망상만 쌓이거나 수행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일에만 치중하는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즘 토굴문화가 수행이 아닌 '쉼터나 별장' 개념으로 변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근기를 스스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선지식의 가르침이다. 선지식은 수행의 길을 안내해 줄뿐 아니라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선 '선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옛 선승들만큼 수행을 하는 선객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직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굴에서 용맹정진하는 있는 선객들을 수행의 사표로 삼을 만하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辛巳年 불교소사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 발족…1461년 간경도감 설치

▲681년(신라 신문왕 1년): 경흥을 국사로 삼아 삼랑사에 머물게 함.

▲741년(신라 효성왕 5년): 왕이 승하하니 유언에 따라 법투사 남쪽에서 화장하여 뼈를 동해에 뿌림.

▲801년(신라 애장왕 2년): 조성왕비 무장사에 미타상과 신중상을 조성.

▲861년(신라 경문왕 1년)
2월: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곡사(885년 대숭복사로 개칭) 창건.

▲921년(고려 태조 4년)
3월: 법경선사 입적. 7월: 원종국사, 투자대동(投子大同)의 법을 얻고 중국에서 돌아옴. 10월: 대흥사를 오관산에 창건, 승려 이언을 맞아들여 스승으로 섬김.

▲981년(고려 성종 1년)
11월: 팔관회 개최, 법황사에 거동하여 행향(行香).

▲1101년(고려 숙종 6년)
4월: 왕이 일원사에 거동하여 금자 〈묘법연화경〉이 이루어진 것을 경축. 7월: 일꾼 1,900인으로 국청사를 중수. 8월: 신라의 원효에게는 화쟁국사, 의상에게는 원교국사의 법호를 내림.

▲1221년(고려 고종 8년)
9월: 원진국사 공산(公山) 염불암에서 열반(1171년 출생).

▲1281년(고려 충열왕 6년)
3월: 승지 염승익의 요청으로 그 집 한 채에 금자대장사경소 설치. 6월: 왕이 경주에 거동하여 승직을 내림. 승려들이 비단 뇌물로 직을 얻으니 사람들이 이를 나선사(羅禪師) 능수좌(綾首座)라고 했음.

▲1401년(조선 태종 1년)
1월: 건성사에 제석례참(帝釋禮懺) 개설, 진관사에 수륙제 개설. 3월: 사헌부, 숭불의 폐해를 건의. 5월: 태상왕, 의종에게 대자(大字) 〈능엄경〉을 선서케하여 간행.

▲1461년(조선 세조 7년)
6월: 간경도감 설치, 불전 국역. 10월: 승니 호패의 법을 제정.

▲1701년(조선 숙종 27년)
지리산 화엄사를 선교양종 대가람으로 삼음.

▲1881년(조선 고종 18년)
5월: 이동인, 서울에서 피살. 9월: 건봉사에서 제3회 염불만일회 개설.

▲1941년
4월: 사찰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전 조선의 사찰 및 승니를 통할하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사법' 인가. 조선불교조계종 발족. 6월: 조계종, 제1회 중앙종회 개최, 종정에 한암 스님 선출. 종무 개시. 12월: 조계종, 전국 각 사암에 대동아전쟁 필승기원제를 봉행하라고 통첩.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 본원종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범해 이 대화
총무원장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6호
TEL : 02) 379-1965/391-4376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이
한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소서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선원장 혜 운
신도회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82-4
TEL : 053-622-0336/629-4945
FAX : 053-655-38251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징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http://www.bongsanbud,org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치악산 구룡사
주 지 (慈光)
李遠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TEL : 033) 732-4800~3
FAX : 033) 732-1211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주 지 이선지
신 도 일 동
TEL : 053) 953-4481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 지 보 혜
신 도 일 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호
TEL : 033) 682-1933

대한불교 조계종 성주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창원시 천선동 102번지
TEL : 055) 262-0108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 사 회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 031) 443-5559

佛舍郎 선종사
대 표 신선종
직 원 일 동
불교용품 제작판매
각종 불사 상담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314-5
사무실 : 031) 858-8661
공 장 : 031) 858-1408
핸드폰 : 011) 9355-1328